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발행인 권기섭 편집인 김덕호

발행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5타워 7-8층  
02-721-7100 www.eslc.go.kr

발간일 2024. 8. 30.

f eslc.kr i eslc.go.kr youtu eslc.go.kr 경제사회노동위원회



9 772636 133001  
ISSN 2636-1337

# 사회적 The Social Dialogue 대화 Brief

2024년 - 14호 | 통권 61호 |

##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의 핵심주체로 미래비전 제시를”

- 권기섭 위원장, 한국노총 예방해 취임인사 및 집행부 간담회 -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8월 12일 영등포구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8월 12일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취임 인사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기섭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동반자”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비

전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한국노총 집행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

한편, 권기섭 위원장은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노사단체와 취임 방문간담회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사노위 본위원회 공익위원들과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eslc**

담당 이현욱 전문위원

# “경총, 적극적 대화에 나서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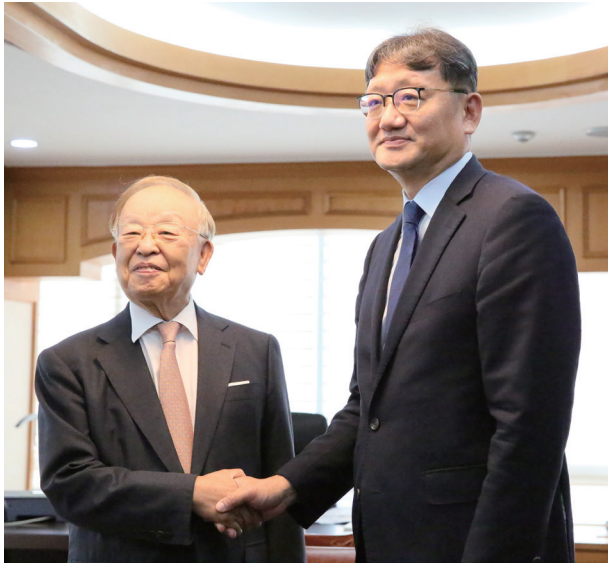
- 권기섭 위원장, 경총 예방해 간담회 가져 -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8월 13일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8월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방문하여 손경식 회장 및 지도부와 취임 인사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기섭 위원장은 “경총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적 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노사관계 최선봉에서 경영계의 구심점으로서 노동계, 정부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경총이 바라는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등 다양한 과제들은 노사정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경총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

노사관계 최선봉에서 경영계의 구심점으로서  
노동계, 정부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

”

한편, 경사노위는 향후 각급 노사단체 및 본위원회 공익 위원들과도 순차적으로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slc](#)

담당 이현욱 전문위원

## 「일·생활 균형 위원회」 본격 논의 박차



▲ 7월 12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일·생활 균형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24.7.12.)에서는 전문가 발제를 듣고 논의하였다. 전문가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우리 모두를 위한 노동시간의 전환 방향, 주4일제’ 발제에서, 일과 삶 균형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목표로 노동시간 체계 개편(주4일제) 필요성

을 주장하고, ①장시간 해소: 실노동시간 단축, ②실 권리: 적절한 휴가 부여, ③야간노동 감축: 야간 근무 단축, ④시간주권 확보: 노동시간 선택과 통제권·자율성 확대, ⑤예측 가능한 교대제: 예측 가능하고 다양한 교대제 노동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하였다.

논의과정에서 노동계는 “2023년 정부가 사용자 주도의 유연근무제(69시간제 등)를 발표하였는데, 사용자 주도의 노동시간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김종진 소장은 “사용자 주도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최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유연한 노동시간이 필요 하더라도 적어도 예측가능한 근무형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고 답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당 생산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인과관계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 현재의 정규직 고용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근로시간 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 및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 한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 유연근무제,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 규정 필요

”



▲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생 활 균형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선택권과 건강권, 생산성 향상(실적)과 성과 공유(보상) 등 근로시간 주요 쟁점 과 이슈에 대해 발제했다. 노동계는 중소기업에서 가능한 근 로자대표제, 중소기업의 장시간 노동 조치 방안 등 현실 가 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기본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10~15%)에 대한 현실 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영 세·소상공인 등 10인 미만 사업장은 재정 및 수용성 등 고 려 시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주 요 정책 대상을 소규모 기업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 다”고 답했다.

제3차 전체회의(‘24.7.19.)에서는 노·사 발제가 있었다. 한 국노총은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최소 연속 휴식시간제(연속휴식권) 전면적 보장, 노동시간 적 용제외·예외 및 특례준치업종 폐지, 야간노동 규제 및 야간노 동자 보호방안 마련, 포괄임금약정 금지 및 노동시간 관리·기 록 의무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정상화, 주4일제 도입 및 시범사업 실시, 국가노동시간단축위원회 설립·운영 및 노동



▲ 이인제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간단축로드맵 수립, 연차유급휴가일수 확대 및 공휴일법 전면 적용, 업무외 시간 연결차단권 도입, 아프면 쉴 권리 유 급병가 도입, 노동시간 단축청구권 확대 및 한시적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재택근무자 보호 등을 제안했다.

“

(노동계) 유연한 근로시간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활용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40시간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

경영계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과 근로자 건강보호 방 안, 유연근무제 합리적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연 구개발 및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 근로시간저축 계좌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

(경영계) 필요한 업종에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유연 근로시간 등이  
허용 될 필요가 있다

”

이후 논의과정에서 경영계는 “필요한 업종에서 노사가 원 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유연 근로시간 등이 허용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노동계는 “유연한 근로시간(탄력근로 및 선택근로 등)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활용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40시 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위원회는 정부 정책 현황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쟁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eslc**

담당 송해순 전문위원